



■ 최경주 올 PGA 개막전 정상 도전

“호랑이 없는 왕중왕전...내가 왕”

“이제 남은 것은 메이저대회 우승이다.”
 화려했던 2007년을 보낸 한국프로골프의 간판 최경주(38·나이키골프·사진)가 미국 하와이에서 2008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를 시작한다.
 지난해 12월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주최하는 특급대회 타깃월드클러지 출전을 사양한 최경주는 텍사스주 휴스턴의 집에서 체력 단련에 힘쓰면서 3일(한국시간) 밤 개막하는 PGA 투어 시즌 개막전 메르세데스-벤츠 챔피언십을 준비해 왔다.
 작년 시즌 2등을 거두는 등 상금 458만달러를 벌어들인 최경주는 세계 랭킹 9위에 오르며 정상급 선수임을 입증했다. 메이저대회 우승을 새 시즌 목표로 세운 최경주는 메르세데스-벤츠 챔피언십에서 컨디션을 점검한다.

메르세데스-벤츠 챔피언십 내일 개막 작년 투어 우승자만 참가...우즈는 불참

하와이 마우이섬의 카팔루아리조트 플랜테이션 코스(파73·7천411야드)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2007년 PGA 투어 우승자들만이 참가 자격을 갖는 시즌 개막전으로 총상금 550만달러가 걸려 있다.
 올해로 네번째 출전인 최경주는 2003년 대회 때 코스레코드 타이 기록(62타)을 세운 어니 엘스(남아공)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했고 작년에는 공동 8위에 오르는 등 나쁘지

않은 성적을 남겼다.
 더욱이 우즈와 필 미켈슨(미국), 아담 스콧(호주), 파드리그 해링턴(아일랜드) 등 세계랭킹 톱10에 드는 4명의 선수가 이번 대회에 불참해 최경주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있다.
 따라서 최경주는 세계랭킹 3위 짐 퓨릭(미국)과 작년 대회 우승자 비제이 싱(파키)을 비롯해 작년 US오픈 챔피언 앙헬 카브레라(아르헨티나) 등과 우승컵을 놓고 샷 대결을 벌이게 됐다. 한편 시즌 개막을 알리는 첫 티샷은 스티븐 에임스(캐나다)가 날리게 됐고 미국프로야구 뉴욕 양키스에서 LA 다저스로 옮겨 올 시즌부터 지휘봉을 잡게 된 조 토레 감독이 시타를 한다.
 /최재홍기자 lion@kwangju.co.kr

전남골프장 폭설에 ‘울상’

연말연초 ‘황금기’ 대부분 휴장

주내 개장 목표 눈 치우기 비상

전남권 골프장들이 갑작스런 폭설에 울상이다.
 골프장들은 구랍 30일부터 새해 첫날까지 광주·전남에 내린 폭설로 인해 연말 풀 부기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모두 휴장, 큰 손해를 보았다.
 하지만 2일을 전후해 눈이 그친다면 이번 주말부터는 전남의 모든 골프장들이 정상영업을 시작해 골퍼들은 신년 라운딩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권 대부분 골프장들은 1일부터 전 직원 출근, 케어웨이와 그린의 눈을 치우는 제설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앞으로 더 이상 눈이 내리지 않는다면 빠르면 일부가 3일 오후부터 개장할 예정이다.
 또 2일부터 눈이 그친다면 주말인 5일부터는 모든 골프장이 정상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CC는 케어웨이 제설작업을 서두르고 있어 3일까지는 휴장 한 후 4일인 금요일부터 정상영업을 재개해 주말부터는 라운딩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이라고 밝혔다.
 클럽900은 눈이 더 내리지 않는다면 목요일인 3일 오후부터 개장 할 예정이며 주말부터는 케어웨이에 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라운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함평다이내스티CC는 금요일부터 정상영업을 시작 할 예정이며, 창평CC는 주말부터 정상영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팔드레이크CC는 2일 전 직원이 2008년 ‘골드레이크 무사건승 안전지원제’를 지난 후 제설작업에 나서 목요일부터 정상영업을 할 방침이다.
 무안CC는 일기상황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금요일 정상영업을 위해 제설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아밸리는 금요일 정상영업을 목표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어 주말부터는 정상영업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함평다이내스티CC 관계자는 “새말 골프를 즐기려는 골퍼들도 실망스러웠겠지만 골프장도 3일동안 휴장해 손해가 많았다”며 “더 이상 눈이 내리지 않는다면 대부분 이번 주 금요일 즈음에 정상영업이 가능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재홍기자 lion@kwangju.co.kr



2008년 힘찬 도약

구랍 31일 독일에서 열린 세계스키점프대회에서 우크라이나 비탈리 선수의 공중을 유명하듯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이형택 새해 첫 승전보

미르니 꺾고 16강 진출

ATP 카타르 엑슨 모빌 오픈

한국 테니스 간판 이형택(세계랭킹 51위·삼성증권)이 새해 첫 날 승전보를 전하며 무자연을 산뜻하게 열어젖혔다.
 이형택은 1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칼리파 테니스 코트에서 시작된 총상금 104만 9천달러가 걸린 남자프로테니스(ATP) 카타르 엑슨 모빌 오픈 단식 1회전에서 막스 미르니(152위·벨로루시)를 2-0(6-3 6-2)으

로 완파하고 16강에 올랐다.
 이형택은 서브, 리턴 등에서 성공률 50%를 넘지 못한 미르니를 가볍게 요리하며 57분 만에 게임을 마쳤다.
 지난해 11월 벼룩시장배 국제남자클러지 대회 이후 오른쪽 팔꿈치와 무릎 통증을 치유해 온 이형택은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동계 훈련을 치르며 올 시즌을 준비했고 첫 대회 1회전에서 손쉬운 승리를 낙하였다.
 투어 포인트 25점과 상금 1만6천750달러를 확보한 이형택은 아구스틴 카에리(42위·아르헨티나)-토미 로브레도(10위·스페인) 승자와 8강 진출을 다툰다.

일본 투수 다르빗슈 유

뉴욕 양키스 러브콜

미국프로야구 뉴욕 양키스가 올 시즌 후 일본프로야구 최고 에이스 다르빗슈 유(22·니혼햄 파이터스)를 영입할 예정이라고 일본 스포츠전문지 ‘닛칸스포츠’가 1일 인터넷 판에서 전했다.
 이 신문은 양키스가 메이저리그 구단으로는 최초로 지난해 말 도쿄에 사무실에 개설하고 본격적으로 조사를 착수했다고 소개했다. 다르빗슈는 뉴욕 메츠,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시카고 컵스 등으로부터도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키스타디움을 떠나 2009년부터 새 구장에 입주하는 양키스는 인기가 많은 다르빗슈를 영입해 일본 기업의 광고 유치도 함께 노리고 있다.

골프·윈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록펠러 회원권

골프장	시세/월회	골프장	시세/월회
평주	3,500	무일배	1,800
남관	4,200	주골드	2,400
클럽900	6,500	도루알	3,000

성명 문의 (062)351-0095

2008년 무자년(戊子年)을 맞는 한국 야구의 키워드는 ‘부활’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프로야구단 현대 매각과 제8구단 창단 문제. 2년 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4강에 오르며 일약 최강국 반열에 올랐지만 이후 추락을 거듭, 국제무대에서 꺾인 체면도 8월 베이징 올림픽에서 만회해야 한다.
 미국프로야구 ‘코리아 빅리거’ 박찬호(35) 김병현(29)과 일본프로야구 이승엽(32·요미우리 자이언츠), 이병규(34·주니치 드래곤스) 등 네 명은 지난해 부진했기에 해외에서 ‘한국 대표’라는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는 올해 선전이 필수적이다. ‘부

올 한국야구 키워드 ‘부활’

KBO 제8구단 창단·베이징올림픽 선전 기대

활’은 이처럼 한국 야구의 모든 것을 관통하고 있다.
 국내프로야구는 지난해 ‘스포테인먼트’로 성적과 흥행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SK 와이번스를 지켜보면서 인기 회복의 싹을 발견했다. 성적이 좋으면 자연스럽게

게 팬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자명한 이치가 새삼 확인된 것이었다.
 올해에는 LG와 롯데, 전국구 구단 KIA의 분발이 예상된다.
 LG 2년차에 접어들 김재박 감독과 선수단의 응화, 사상 첫 외국인 사령탑 제리 로

이스터 롯데 감독, 10년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 데뷔를 앞둔 KIA 우완 투수 서재응 등 올해도 볼거리는 충분하다.
 그중에서 현대를 인수해 새롭게 창단하겠다는 밝힌 KT의 프로야구 입성은 핵심 화두다.
 지난 연말 기준 7개 구단과 KT 간 과열음이 일기도 했으나 야구 인기 부활에 절대적인 8개 구단 체제 존속을 위해 KT의 참가는 꼭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한국야구위원회(KBO) 이사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